
석사학위논문

남세자의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1997년 12월

納稅者의 租稅回避에 관한 實證的 研究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高 富 彦

吳 成 哲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12月

吳成哲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康 熙 壽 (印)

委 員 徐 賢 珍 (印)

委 員 高 富 彦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7年 12月

An Empirical Study on the Tax Evasion
of Tax Payers

Seong-Cheol, Oh
(Supervised by Professor Bu-Eon,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7. 12.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1
제 3 절 연구방법	3
제 2 장 이론적배경	4
제 1 절 조세회피의 개념	4
제 2 절 조세회피의 원인	5
제 3 절 조세회피의 유형	8
제 4 절 조세회피의 문제점	14
제 5 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 3 장 납세자의 조세회피의 연구	32
제 1 절 조사방법 및 연구표본의 특성	32
제 2 절 가설설정	36
제 3 절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37
제 4 장 납세자의 조세회피의 실증분석	40
제 1 절 납세자의 특성별 조세회피 인식과 행위에 대한 차이분석	40
제 2 절 조세회피 유발요인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	44
제 3 절 납세자의 특성별 조세회피 유발요인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7
제 4 절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	51
제 5 장 요약 및 결론	52
참고문헌	55
설 문 서	59

표 목 차

〈표 2-1〉 각국의 조세부담을 현황	6
〈표 2-2〉 조세부담을 추이	7
〈표 2-3〉 종합소득세 유형별 조사결정 추이	10
〈표 2-4〉 외국학자의 성실납세에 관한 연구결과	22
〈표 2-5〉 국내학자의 성실납세에 대한 연구결과	31
〈표 3-1〉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33
〈표 3-2〉 자료수집	33
〈표 3-3〉 성별에 따른 분포	34
〈표 3-4〉 연령에 따른 분포	34
〈표 3-5〉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	35
〈표 3-6〉 기업유형에 따른 분포	35
〈표 3-7〉 기업 업종에 따른 분포	36
〈표 4-1〉 기업형태별 조세회피인식과 행위에 대한 차이분석	41
〈표 4-2〉 업종별 조세회피인식과 행위에 대한 차이분석	42
〈표 4-3〉 세무조사 여부에 따른 조세회피 인식과 행위에 대한 차이분석	43
〈표 4-4〉 조세회피의 개별적 유발요인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	44
〈표 4-5〉 조세회피유발요인 분석	46
〈표 4-6〉 개인기업의 조세회피유발요인 분석	47
〈표 4-7〉 법인의 조세회피유발요인 분석	48
〈표 4-8〉 제조업의 조세회피유발요인 분석	48
〈표 4-9〉 도·소매업의 조세회피유발요인 분석	49
〈표 4-10〉 서비스업의 조세회피유발요인 분석	49
〈표 4-11〉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의 조세회피유발요인 분석	50
〈표 4-12〉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의 조세회피유발요인 분석	50
〈표 4-13〉 조세회피 인식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	51

SUMMARY

An Empirical Study on the Tax Evasion of Tax Payers

Seong-Cheol, Oh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ax evasion activities has not been actively studied, even though tax evasion became a social problem and a matter of great common concern. So we need to study broadly the causes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ax evasion activities to make a sound tax policy and improve the taxation system as well as to supply for the financial demand.

This paper makes the theoretical study and then investigates on 200 taxpayers how the various factors can affect tax evas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a method for the sincere tax payment through analyzing tax evasion activities. Therefore, We can establish tax evasion activity as a dependant variable and tax rate, increase of tax rate, probability of detection, penalty rate, fairness of taxation

system, fairness of expenditure, tax ethic, legal sanction, the degree of trust on tax administration, social atmosphere that can affect the tax evasion as independant variables.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rom the analysis.

- (1) Through analyzing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ecognition and activity of tax eva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we can see that the degree of distrust on tax administration is statically significant.
- (2) Through analyzing the affection of tax evasion factors on activities we can see that tax evasion activity is affected to the positive direction by social atmosphere, tax rate and to the negative direction by the degree of trust on tax administration.
- (3) Through analyzing the affection of tax evasion fac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we can see that social atmosphere has an effect on bringing about tax evasion activities to the positive direction in the case of private businesses and the degree of trust on tax adminstraion has an effect on bringing about tax evasion activities to the positive direction in the case of corporations. in the case of manufactures, fairness of taxation have an effect on bringing about tax evasion activities to the positive direction and in the case of the wholesale and retail trades the increase of tax rate has an effect on bringing about tax evasion activities to the positive direction. For the taxpayers who have ever experienced a tax examination, social atmosphere have an effect on bring about tax evasion activities to the positive direction and for the taxpayers who have never experienced a

tax examination the degree of trust on tax administration, to the negative direction.

- (4)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cognition desire for tax evasion the achievement of the efforts for tax evasion have an effect on bringing about tax evasion activities tax discontentment, tax rate, the degree of trust on tax administration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 (1) The results can not be a generalization for all Korean taxpayers' tax evasion activities because it is obtained from the subjects who reside in Cheju City.
- (2) This study includes only individual tax and corporation tax, so value-added tax, special consumption tax, residents' tax must be included in order to discuss the overall tax evasion.
- (3) A hypothesis can not reflect all the actually possible situations because tax evasion is a complicated social phenomenon and there can be a error in controlling the selected variable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조세회피의 문제는 조세제도가 발생하면서부터 존재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조세회피 문제는 조세제도가 발생한 이래 어느 국가에서나 중대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납세자에 있어서의 조세는 구체적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재산권이 강제 이전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극소화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한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는 국가를 성립하고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소요재원의 일차적 획득수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정책의 결정이나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세회피의 문제가 오랫동안 모든 국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근래에 와서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세회피의 규모나 그 실태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세회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조세회피 행위의 원인 및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원인은 조세회피 문제가 매우 복잡한 사회현상이어서 그 원인이나 실태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조세회피가 납세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 규모 또한 방대하여지자 성실한 납세자계층과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 납세자계층을

중심으로 조세회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가 사회문제화되고 따라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회피 행동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재정수요의 원활한 조달은 물론 조세정책의 건전화와 조세의 개선을 위해서도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의 원인이나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의 만연은 조세수입 확보의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소득재분배의 저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조세부담의 불공정초래 등 무수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회피 행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나 동기,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조세납부의 성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 결과 효율적인 국민경제운용과 국민복지증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¹⁾. 그러나 지하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조세회피는 실제로 그 규모를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세회피의 실태나 규모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요인 및 이론적 배경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매우 적다. 따라서 재정수요의 원활한 조달은 물론 조세정책의 건전화와 세제개선의 선행요건으로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인 동시에 개선을 요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에 근거하여 이들 요인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납세자가 지하경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한 납세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까 하는 납세성실성의 유인방안을

1) 이종환,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분석을 통한 납세성실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4호, 한국세무학회, 1993.

찾아냄으로써 건전한 조세정책의 수립 및 세계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 연구를 한 다음 납세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를 유발시키는 영향요인이 조세회피 행위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검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은 조세회피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서 조세회피의 개념, 원인 유형, 조세회피로 인한 문제점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가설 및 변수를 설정하고 제4장에서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조세회피의 개념

광의의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조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성실납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실납세(tax compliance)는 국세청의 개입 없이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²⁾을 의미하며, 조세회피 행동을 합법적인 회피행동과 비합법적인 회피행동으로 구분할 때, 전자를 절세라 하고 후자를 탈세라고 한다.³⁾ 그리고 비합리적인 조세회피로서 '노골적인'인 탈세와 '은폐적'인 탈세를 들 수 있다. '노골적인 탈세'는 조세 저항을 뜻하며, '은폐적인 탈세'는 공무원과의 결탁에 의해 자행되며 또는 장부의 위장기재, 거래사실의 인멸 등 모두 불법적인 특성을 지닌다.⁴⁾

합법적인 절세 행동을 영미 계통에서는 조세회피(tax avoidance)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비합법적 조세회피를 탈세(tax evasion)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조세회피는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⁵⁾ 여기에서 법률상의 행위형식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다른 행위형식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어떤 경제행위가 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세부담의 경감이 초래되었다면 조세회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상은 절세와 조세회피(tax avoidance)를 구분할 때 조세회피에 관한 정의이다.

2) Jackson, B. R., V. C. Milliron,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86, pp. 125-65

3) 이필우,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접근」, 『한국재정학회 1986년도 가을학술발표회 논문집』, 1986. 10. 56면

4) _____, 『조세론』, (법문사, 1995), 426면.

5) 『세무대백과사전』, 한국세정연구회, 1986, 119면.

반면에 합리적인 절세와 조세회피를 동일시하는 경우는 세법규정에 상충되거나 정면으로 세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를 부과하려는 세법정신에 상치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감소하려는 행위를 조세회피로 정의한다.⁶⁾ 요컨대 조세회피와 절세를 굳이 구분한다면 특혜 법규에 따른 적법한 세부담 경감을 절세라 할 수 있고 조세회피는 위법은 아니나 세법정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지칭한다. 결국 조세회피와 절세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세금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의 차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행위이고, 조세회피는 행위자체는 합법적이지만 조세를 부과하려는 세법정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라는 점이다.

제 2 절 조세회피의 원인

1. 세부담의 과중과 불공평

한계세율이 매우 높은 경우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들도 조세회피를 시도하게 된다. 세율이 높을 때에는 세부담이 낮을때 정직했던 많은 납세자도 정직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므로 조세회피를 하기에 이른다.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세율만이 아니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달려 있다. 세금에 대한 인식은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에서 영향을 받은 바, 공공지출이 낭비적이라든가 세부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면 자연히 지상경제보다 지하경제에 참가하려 할 것이다. 조세행정이 훌륭하고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벌칙이 효율적일 때, 한계세율이 높아도 조세회피는 왕성할 수 없다.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를 지하경제 존재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6) 황원오, 「국제적인 조세회피의 유형과 대책」, 『한국국제재정학회 조세학술논집 제4집』, (조세통람사, 1987), 33면.

여러 종류의 조세 중 어떤 조세가 지하경제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지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높은 소득세율이 지하경제의 주된 요인이라 지적되는데 몇몇 국가의 경우 높은 사회보장세 부담을 들기도 한다.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실업보험, 사회보장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게 되어 세부담이 무거워진다. 더욱이 누진세인 소득세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계속되면 납세자들로서는 실질 소득보다 세부담이 더 빨리 증대하여 과세후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납세자들은 납세신고에서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소득을 감소시켜 생활 수준의 저하를 방지하려 할 것이다.

<표 2-1>

각국의 조세부담률 현황

(단위:%)

구 분	한 국 ('94)	일 본 ('93)	미 국 ('92)	영 국 ('92)	독 일 ('92)	이태리 ('90)	프랑스 ('89)	스웨덴 ('91)
조세부담률	20.0	20.1	20.5	28.2	24.2	25.7	25.1	49.9

주 : 사회보장분담금 제외

자료 :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1995. 4)

『95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1995), 24면

이준구,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1996), 54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 세무 당국의 통제를 손쉽게 피할 수 있는 영세기업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으며,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은 부가가치세 탈세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출입 관세율이 높을수록 밀수 행위가 성행한다.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산가치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이루어진다. 높은 세부담이 반드시 지하경제를 번창시키는 것은 아니다. <표 2-1>과 같이 스웨덴에서는 지하경제가 존재하

7) 최 광,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7), 26면.

지 않거나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도 성립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추이는 <표 2-2>와 같다.

높은 세금 부담이 지하경제 생성의 한가지 요인인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표 2-2>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구 분	1979	1980	1982	1983	1984	1987	1993	1994
조세부담률	17.4	17.8	18.1	18.4	17.5	16.9	18.9	20.1
(내국세)	9.8	10.0	10.1	10.0	9.4	9.1	12.9	12.7
(관 세)	2.4	2.1	1.9	2.4	2.2	2.5	1.1	1.1
(지방세)	1.9	2.1	2.1	2.3	2.1	2.0	4.1	4.4

자료 : 『국세청 30년사 』, (국세청, 1996), 72-7면

2. 일반적 조세회피요인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요인은 1) 높은 세율과 인플레이션, 2) 세제 및 세법의 복잡성, 3) 조세 감면의 과다 허용에 따른 세부담의 불공평, 4) 납세 의식의 저하, 5) 사회적 윤리 및 도의심 저하, 6) 세무행정의 난맥과 불공평한 시행, 7) 기업의 고용과 관련한 정부규제의 증대, 8) 정책 운용의 비효율, 9) 납세자의 무지, 10) 정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⁸⁾

8) 최 광, 1987, 31면.

제 3 절 조세회피의 유형

1. 합법적 조세회피행위와 불법적 조세회피행위

합법적인 조세회피행위인 절세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적법한 수단, 즉 세법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조세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이다. 이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절세의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로 국가의 재정을 위축시키며, 나아가 절세행위를 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못한 납세자간에 불공평한 조세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비합리적인 조세회피행위인 탈세는 의도적이며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조세납부로부터 벗어나려는 조세회피 행위인 바, 이때 탈세는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법적인 납세의무를 덜거나 완전히 회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탈세의 개념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협의는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한 포탈범에 해당하는 범칙 행위를 의미하며, 광의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각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 수입을 감소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⁹⁾ 그러므로 탈세의 존재는 조세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탈세란 일반적으로 법적인 조세의무를 불법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탈세는 조세법 규정의 위반에 의한 조세회피인 반면 절세는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을 야기시키는 세법상의 불완전성을 이용한 조세회피라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양자가 명확히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인 조세회피와 비합법적인 조세회피를 식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절세와 탈세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한편, 정부의 세입확보라는 기준에서 볼 때에 탈세와 절세는 구분되지 않는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구분되나 정부의 세입과 재정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¹⁰⁾

9) 국세청, 『탈세-그 유형과 실태』, (국세청, 1982), 10-1면

10) Herschel, F. J., "Tax Evasion and its Measur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Public Finance*, Vol. 33, No. 3. (1978), p. 233.

본 연구에서는 합법적인 조세회피와 비합법적인 조세회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조세회피라 칭하며,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세회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조세회피를 불성실납세(tax noncompliance)라 하여 성실납세(tax compliance)의 대칭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불법적 조세회피행위의 유형

조세회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제기하는 어려운 일이나,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적인 조세회피행위이므로 대표적인 조세회피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세무자료 및 세무정보의 미제출

대체로 신고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필요한 세무정보를 세무당국에 성실하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고의이든 과실이든 간에 이의 미제출은 보통 조세회피로 추정된다. 세무자료 미제출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무신고서의 미제출과 과세대상 자산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모든 국가가 획일적으로 세무신고서의 미제출을 조세회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회피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쉬운 조세회피행위는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표 2-3>

종합소득세 유형별 조사결정 추이

(단위:천명, 백만원, %)

결정유형	연도구분	1988		1990		1992		1994	
		인원	소득	인원	소득	인원	소득	인원	소득
합	계	662 (100)	4,303,221 (100)	636 (100)	5,821,413 (100)	828 (100)	9,294,849 (100)	1,138 (100)	15,821,523 (100)
신고결정		21 (3.2)	318,457 (7.4)	17 (2.7)	378,776 (6.5)	19 (2.3)	550,604 (5.9)	127 (11.2)	1,765,925 (11.2)
조사	서면	207 (31.3)	2,385,612 (55.5)	235 (36.9)	3,325,156 (57.1)	282 (34.1)	5,341,090 (57.5)	291 (25.6)	8,076,172 (51.1)
	실지	12 (1.8)	95,693 (2.2)	18 (2.8)	177,301 (3.1)	23 (2.7)	260,464 (2.8)	11 (0.9)	213,859 (1.3)
	추계	422 (63.7)	1,503,459 (34.9)	366 (57.6)	1,940,180 (33.3)	504 (60.9)	3,142,691 (33.8)	709 (62.3)	5,865,566 (36.4)

주 : ()는 비율임.

자료 : 『국세청 30년사』, (국세청, 1996), 329-30면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신고, 조사결정 비율을 <표 2-3>에서 보면, 1994년 추계 조사가 인원비율 62.3%, 소득비율 36.4%를 차지하고 있어 세무자료 미제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2. 소득항목의 허위보고

납세자가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탈하기 위해 소득항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증여세나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것을 양도로 위장 신고하는 행위, 수수료·이자·사용료 등을 배당지급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2·3. 회계처리의 조작

회계장부의 처리를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수법은 매우 보편적인 조세회피방법으로 그 수법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이중장부 또는 이중재무제표의 작성, 매입가액을 과대하게, 매출가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비용 또는 가공매입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2·4. 재산(재화)의 은폐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재화) 또는 소득을 은폐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조세회피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나 그로부터의 소득을 향유하면서 소득이나 그 자산의 법적 지배권을 면세자나 저소득자에게 형식상 이전하는 행위와 현금, 귀금속, 무기명 증권, 예술품(골동품) 등의 형태로 상속시키므로써 상속재산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5. 조세감면혜택의 남용

국가에서 제공하는 조세감면혜택을 남용하는 경우로 지점이나 자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조세감면혜택을 남용하여 본점과 지점간의 기술이전비등을 과소계상하여 모회사의 과세소득은 감소시키고 반대로 지점이나 자회사의 감면소득은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납세자의 해외도피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도 흔한 조세회피의 한가지 방법이다. 조세회피수단은 각국 세법의 복잡성과 허점에 따라 다양각색이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가 납세의무의 경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의 결과인지 어떤 상거래의 부수적인 결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는 세법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의도 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3. 회계처리 방법에서 본 조세회피유형

회계처리 방법에서 본 조세회피 유형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¹⁾

11) 국세청, 『세무조사실무』, (국세청 1994), 11-44면

3·1. 외형누락

1) 무자료 매입에 의한 매출누락

- 매출액 및 매출원가 모두 부외처리한다.

2) 생산량 조작에 의한 매출누락

- 제조원가는 모두 비용계상하고 매출액은 부외처리하거나, 차입금,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의 회수 등으로 처리한다.

3) 기술소득분(부산물 등) 매출누락

- 원재료 구입전량을 모두 제조원가 처리하고, 잉여원자재 및 부산물은 매출 누락처리한다.

4) 매출단가 조작에 의한 매출누락

- 특정인에게 매출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고, 수량은 늘려 기재한 후 늘린 수량을 타인에게 무자료매출 처리한다.
- 제품이 품귀상태일 때 가격을 높여 판매한 후, 정상가격대로 매출처리하고 차액은 누락한다.

5) 제품 질의 등급조작에 의한 매출누락

- 정상품을 불량품으로 분류하여 재투입처리하거나 불량품으로 싸게 판 것으로 처리한 후 차액은 누락한다.
- 고급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분류하여 매출단가 차액을 누락한다.

6)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면적 및 임대료 조작에 의한 수입누락

- 세무신고용 임대계약서와 실지 임대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그 차액을 누락한다.

3·2. 원가 및 경비 변태처리

1) 가공원가의 계상

- 원·부자재를 가공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인출, 가수금 반제 등의 방법으

- 로 인출하여 유용한다.
 - 매입단가 차액은 외상매입금 계정에 올렸다가 인출하여 사주 등이 유용한다.
 -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여 사주가 유용하거나 사경비, 비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건설업 등)
 - 잉여자재(저장품 등)를 원가구성하고 무자료판매한다.
- 2) 기타경비 변태처리
- 거래처가 부담할 경비, 사주·관계인 등이 부담할 경비 등을 회사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인건비 등을 가공계상하고 현금인출하여 유용한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접대비, 기타 소모성 경비를 가공계상한 후 기밀비 등 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주 또는 관계인 등이 유용한다.

3·3. 자산누락

1) 재고자산누락

- 재고자산을 누락하거나 자산취득을 비용으로 처리(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이익을 조작한다.

2) 가공자산의 계상

- 자산을 가공취득한 후 현금 등을 유출한다.
- 건물 자가신축시 가공노무비 등을 계상한다.
- 고정자산(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계없는 경비를 계상한다.
- 매출채권 등을 회수한 후 임원이 유용한다.
- 예금 등을 인출하여 유용하면서 장부에 미기재한다.

3) 부당행위 계상

- 특수관계자의 고정자산, 투자자산 등을 고가매입한다.
-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타계정으로 처리한다.

· 특수관계인이 고정자산을 무상 사용수익한다.

3·4. 가공부채의 계상

1) 가공비용과 가공부채를 동시 계상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차입금 및 가수금을 가공계상한다.

제 4 절 조세회피의 문제점

1. 비합법적인 조세회피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회피 행위의 만연이 정부의 행정조직 및 세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데 있다.

P. M. Gutmann(1977)은 지하경제를 'Subterranean Economy'라 하여 조세로부터 벗어난 거래 (transactions that escape from taxation)라고 정의하였다.¹²⁾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및 서면조사결정 소득 비율이 62.3%로서 세정의 상당한 부분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납세자의 세제에 대한 신뢰성 감소와 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의 확대는 세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크게 저해시킨다.

2.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의 불공정을 심화시켜 국민의 단결력을 저하시키며 소득 분배정책을 교란시킨다. 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차등이 생기고, 이러한 차등적 조세부담은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에 위배되므로 사회 구성원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3. 조세회피가 심화되면 정부예산상 세입과 세출에 압박을 가한다. 조세회피에 따른 지하경제의 확대는 지상경제수준을 낮추고 이에 따라 정부는 더 높은 일반적 지출과 이전지출에의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12) Gutmann, P. M., "The Subterranean Economy", *Financial Analysis Journal*, Vol 33 (Sept/Dec) 1977, p. 4.

4.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경제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이 징수되어야 한다. 고율 과세는 자원이동을 지하경제로 유도하여 막대한 후생손실을 초래한다. 한편 경제적 자원이 생산성 분위로 배분되지 않고 기회 분위로 배분되어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력이 낮아져 결국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조세회피 확대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잘 살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사회전반에 불신풜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6. 사회적 불신풜조의 조장과 확산은 통계자료의 정확성 저하와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모든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켜 정부의 효율적인 경제정책운용을 어렵게 한다.

7. 조세회피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온다.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람은 동등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조세회피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본소득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보다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한다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동력만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조세부담의 수평적 불평등은 물론 수직적 원리 역시 조세회피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집단의 소득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렵고, 보다 광범위한 조세회피행위가 이러한 소득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누진효과가 감소되어 수직적 형평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가 언제나 부정적 측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경우도 있다.¹³⁾

첫째, 조세가 회피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특정 경제부문의 생산활동이 조세회피로 인하여 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가 특정부문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임함으로써 공

13) 유시영,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18면.

급측면의 경제형성을 도모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경우로서, 최근 정부가 생산적인 중소기업의 생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발표는 가장 가까운 실례이다.

I. Haanson¹⁴⁾의 주장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무리한 금지는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회피세액의 감소보다 과세소득의 감소액이 더 커서 오히려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정부가 무리한 조세정책을 강행하여 조세저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조세회피는 정부의 무리한 조세정책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어느 정도까지 조세회피에 의하여 조세부담을 덜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임하여 조세저항의 확산을 예방하고 나아가 세율의 무리한 인상 등을 자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조세법체계 내에 허점(loopholes)을 두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에서 오는 장점보다는 단점의 피해가 더 커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 5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외국학자의 연구

1·1. M. G. Allingham과 A. Sandmo, S. Yitzhaki, V. Christiansen의 연구

Allingham과 Sandmo(1972)는 계획적인 과소신고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 납세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으며, Yitzhaki(1974)는 벌금과 조세회피액간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존재를 분석하였고, Christiansen(1980)은 벌금과 적발확률간의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14) 박헌열,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 37.

1·2. J. Vogel의 연구

Vogel(1974)¹⁵⁾은 설문조사방법으로 스웨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세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원천징수의 유무에 따라 조세회피의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사람 중 준거집단 내에 있는 사람(36%)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자신의 조세회피행위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Vogel의 조사는 실제소득자료 없이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평가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1·3. K. A. Mork의 연구

Mork(1975)¹⁶⁾는 노르웨이인 3,4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자들이 실제로 큰 규모의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소득수준을 1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소득중간값을 W , 평균추정 소득(average assessed income)을 X_1 , 평균연금소득(average pension saving income)을 X_2 로 표시하고, X_1/W , X_2/W 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모두 100% 이하로 체감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갈수록 신고소득의 비율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1·4. M. Spicer와 S. Lundstedt의 연구

Spicer와 Lundstedt(1975)¹⁷⁾는 개인의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대도시 두 곳의 교외에서 130개 상위와 중위 소득계층을 표본대상으로 1974년 실시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저항지수와 조세회피지수로 조세회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납세자의 조세회피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지수를 사용하였다. 과세권자의 규제수단인 세무조사의 비율과 벌금의 크기, 납세자의 연

15) Vogel, J.,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27, No. 4 (December, 1974) ; pp. 499-513.

16) 박헌열, 1996, p. 39.

17) Spicer, M. W. and S. B. Lundstedt,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Vol. 31, (1976) ; pp. 295-305.

령과 교육수준 및 조세윤리수준, 조세제도의 공정성, 납세자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조세회피자의 비율,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아 본 경험 등이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조사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주관적인 적발확률이 클수록 조세에 대한 저항의식이 낮아지고 있었으며, 총소득금액중에서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에 대한 저항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1·5. N. Friedland, S. Maital과 A. Rutenberg의 연구

Friedland, Maital과 Rutenberg(1978)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세율 등의 요소가 탈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들 연구의 표본은 평균 25세의 나이를 가진 15명의 이스라엘의 심리학전공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조세회피의 범위와 확률에 대한 이들 측정치를 세율, 벌금의 크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벌금이 세무조사보다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율이었다. 배경변수의 연령, 성, 결혼유무 등이 조세회피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보다 젊은 참여자들과 여자들 및 기혼자들은 더 적게 신고하였다.

1·6. C. Clotefelter의 연구

Clotefelter(1983)¹⁸⁾는 실제 개인들의 신고서를 이용하여 소득세신고와 한계세율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자료는 1969년 IRS의 납세자 성실납세도 측정 프로그램(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 TCMP) 조사자료이고, 약 47,000명의 개인들에 대한 조세신고서를 포함한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 소득의 원천, 적발확률 등의 설명변수와 결혼여부, 연령, 거주지역 등의 더미(dummy)변수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18) 박헌열, 1996, p. 40

을 회귀분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한계세율과 세후소득이 조세회피와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부차적인 결과로 임금, 이자, 배당이 소득에 비하여 보다 큰 비율을 구성하는 경우 과소신고는 대체로 낮음을 알았다. 납세행위와 관련된 다른 변수가 일정한다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 비하여 소득을 과소신고한다는 것이다.

1·7. Y. D. Song과 T. E. Yarbrough의 연구

Song과 Yarbrough(1978)¹⁹⁾는 1975년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640개 가계에 대한 표본조사를 기초로 하여 조세윤리지수를 작성하고 조세회피와 조세윤리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에 대한 분석에서 표본의 대다수(88%)가 조세회피를 범죄(crime)로 간주하였지만 그들은 당국에 조세회피자들을 보고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응답자들 중 단지 30% 미만이 그러한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 더욱이 응답자들 중 거의 반은(48%) 그들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을 때 조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반에 대하여 심한 처벌을 받을 만한 중죄로 여기지는 않았다.

일부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비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추정하는 질문에서 약 75%는 그들이 비용을 과대계상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64%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 전부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상관관계는 높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조세윤리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납세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조세회피의 적발확률이 가장 중요하였다. 결혼한 사람이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독신 생활자와 전세입주자보다 조세윤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 Song, Y. D. and T. 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Discrepan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8, (1978) ; pp. 442-52.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건전한 조세윤리의식이 있었다.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 납세자가 거의 없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소외감과 불신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조세윤리수준이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조세윤리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Vogel의 연구결과와 서로 반대가 되고 있다.

1·8. A. Lewis의 연구

Lewis(1979)²⁰⁾는 1977년 영국 바쓰(Bath)에서 200명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 질문서는 탈세와 절세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부가하여 납부세액, 조세체계의 기능, 누진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탈세를 찬성하지 않았고, 탈세자들은 법에 의하여 가혹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탈세에 대한 응답은 분명치 못하였다. 고소득자들, 중간부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규모탈세는 가볍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표본에 포함된 사람들은 소득과세를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위하여 지불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듯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그들 자신의 부담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생각하였다(응답자들중 53.5%가 그렇게 생각하였다). 이것은 특히 누진소득과세가 불공평하다고 느낀 고소득집단에서 두드러졌다.

Lewis(1979)는 조사를 통하여 소득과세에 대한 태도는 소득수준에 크게 의존하며 고소득자들은 소득과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못하였다. 그들은 탈세와 절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동조한다는 것이다.

1·9. M. W. Spicer와 L. A. Becker의 연구

Spicer와 Becker(1980)²¹⁾는 조세체계에서 인식된 불공평성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콜로라도(Colorado)대학에서 57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게임(game)

20) Lewis, A.,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Vol. 34, (1979) ; pp. 245-57.

21) Spicer, M. W. and L. A. Becker, Vol. 33, (1980) ; pp. 171-5.

을 하였다. Spicer와 Becker(1980)의 게임과 Friedland, Maital과 Rutengerg (1978)의 게임의 차이는 게임의 참여자들이 다른 참여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었다. 평균세율이 1/3은 65%, 다른 1/3은 15%, 나머지 1/3은 40%라고 들었다.

신고에 관한 영향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급할 세금(taxes payable)의 약 33%를 탈세하였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게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단지 약 12%를 탈세하였다. 사실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세금의 약 25%를 탈세하였다. 다른 변수를 일정한다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 A. D. Witte와 D. F. Woodbury의 연구

Witte와 Woodbury(1983, 1985)²²⁾는 성실납세(tax compliance)에 대한 제재변수들의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그들은 1970년에 IRS에 제출된 1969 사업년도 조세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진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척도이고 1969년 TCMP와 관련된 납세사들에 대한 층화무작위표본(stratified random sample)의 일련의 조사에 따라 계산되었다. 그것은 조세과소납부와 과대납부의 절대값이 납부된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측정된다.

Witte와 Woodbury(1983, 1985)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세무조사 확률은 낮은 소득의 비영업납세자를 제외하고 높은 성실납세 이행률과 관련되었고, 둘째, 형사상의 사기(criminal fraud)에 대한 금고선고의 엄격성은 일반적으로 성실납세이행을 증가시켰으며, 셋째, 적발의 염려(fear of detection)는 성실납세 이행을 증가시켰다. 넷째, 소득효과는 복합적이고, 성실납세 이행률은 소득에 따라

22) Witte, A. D. and D. F.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mineo,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83). , 1985 : pp. 1-13.

매년 약 \$ 30,000의 소득까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섯째,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납세자들은 비노동소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납세자들보다 조세규제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동의하고 있으며,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업자들의 동의가 적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외국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표 2-4>과 같다.

<표 2-4> 외국학자의 성실납세에 대한 연구결과

연구자	조사 방법	연구 결과													
		성별	교육수준	소득원천	직업	준거집단	조세운리	공평성	복잡성	세무간섭	제재	적발확률	세율	기타 변수	기타 변수
Allingham & Sandmo, 1972	이론적		-								+	+	0	종교	
Spicer, 1974 (Spicer & Lundstedt, 1976)	실증적		0	0	0	0	+	+	+	-	0	0		정당관계	
Vogel, 1974	실증적	+	-			-	+	0					0	정부신뢰도, 사회성향	
Lewis, 1979	실증적		-										0		
Mork, 1975	실제자료		-	+											
Clotfelter, 1983	실제자료		-	+					-				-		
Witte & Woodbury, 1985	실제자료		+	-	+	+				+	+	+			
Friedland, Maital & Rutenburg, 1978	실험적	-	+	-								0	0	-	적발확률 대상 대적 제재강도
Spicer & Becker, 1980	실험적	+		0			+						-		

주 : + : 성실납세의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
 - : 성실납세의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
 0 : 불확실함

2. 국내연구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루어져 있으며, 연구방법은 대체적으로 실험연구방법과 일반적 설문조사방법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실제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설문조사에서 실질소득이나 실제로 낸 세금과 실제 조세회피액 등에 대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실험적 연구방법이 어느 정도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응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인을 통한 실제자료를 확보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좀 더 현실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2·1. 전태영의 연구

전태영(1990)²³⁾은 실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8가지의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납세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실험대상자는 8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이 조세회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였다.

결과는 소득수준은 낮을수록, 소득세율은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낮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빈도가 높을수록 납세자들의 반응은 저항적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접근방법에서 많은 표본집단을 확보하기 힘든 연구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기는 하지만, 가정된 상황하에서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만큼 실제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2·2. 이종환의 연구

이종환(1992)²⁴⁾은 납세자를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23)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24) 이종환,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과세특례자에게 주어지는 세제상의 특혜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의 대두에 따라 이들 두 집단간의 납세행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총 167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와 세율간의 관계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없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세금의 약 60% 정도가 적정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세율구조와 관련하여 누진세율구조하에서 일반과세자들은 과세특례자와는 달리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발확률과 가산세는 두 집단 모두 조세회피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적발확률과 가산세율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감소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재정불공정성과 조세회피의 상관관계는 의미를 없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아이러니컬(ironical)한 점은 과소신고의 욕구는 일반과세자가 높지만, 조세회피성과는 과세특례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된 회피유형은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3. 신형환의 연구

신형환(1993)²⁵⁾도 앞의 전태영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실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실험변수로는 세무행정의 공정성, 실제소득금액, 평균소득세율을 이분적으로 조작하여 총 8개의 실험사례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하였고 110개의 유효사례수로 분석하였다. 유의한 변수로는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평균소득세율이 있고, 응답자인 세무전문가들은 세율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의 공정성이 낮을수록 조세회피욕구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험연구의 한계인 변수의 인위적 조작과 통제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다양한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5) 신형환, 『조세회피와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2·4. 김진황의 연구

김진황(1993)²⁶⁾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207개 업체)과 비상장기업(122개 업체)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납세풍토, 납세의식, 과세공평성, 재정공평성, 조세부담률, 제재정도, 행정능력, 세제복잡성, 매출액, 직종 등의 변수를 가지고 조세회피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매출액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수준이 낮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기업풍토가 기업의 납세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정능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무당국의 조사빈도나 세무조사의 엄격성 등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조세회피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평성 요인이며, 비상장기업 중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실제 자료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21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 하겠다.



2·5. 유시영의 연구

유시영(1993)²⁷⁾도 실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실험변수는 소득수준,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로 하고, 배경변수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정도, 조세윤리 수준, 연령, 성별로 하여 총 24개의 실험사례를 만들어 설문조사하였고, 잠재납세자 44명, 사업자 40명, 계 84명의 유효 사례수를 분석하였다. 유의한 변수는 세율, 가산세율, 적발확률이며, 세율과 조세회피 행동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어, 세율이 높아지면 조세회피 행동은 증가한다. 적발확률을 높이면 납세자의 조세회피행동은 감소하며, 이는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26) 김진황, 1993.

27) 유시영, 1993

소이다. 가산세율을 증가시키면 납세자의 조세회피행동은 감소한다. 그러나 가산세율은 실험변수로서의 중요성에서 적발확률이나 세율에 비해 낮았다.

배경변수의 공정성인식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정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고, 조세회피정도는 공정성이 높다는 납세자일수록 감소하고,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증가하였다. 조세윤리는 긍정적이어서 조세윤리의식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행동은 감소한다고 판단한다. 연령은 낮은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의지가 약하였고, 성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세회피의지가 약하였다. 실험연구의 한계는 인위적 실험설계로 인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높으며, 실험변수의 수가 비교적 많고, 한 응답자에 대한 실험회수가 많아 성실한 응답을 얻을 수 없어 그 효과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6. 변용환의 연구

변용환(1995)²⁸⁾은 실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가 준거집단의 조세회피 기회로 하고, 종속변수는 조세환경이 불형평상태에 있을 때 납세자가 보이는 반응으로 납세자의 태도 및 구체적인 행동 두가지이다. 실험대상을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로 나누고, 자영업자 41명, 봉급생활자 46명 계 87명의 유효사례수를 분석하였다.

조세형평성은 납세성실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여러 납세기피속성들 중에 하나로서 부분적으로 조세형평성이 연구되든지 아니면 전반적 개념의 형평성이 사용되어 납세기피행위와의 연관관계가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 형평이라는 보다 세분화된 개념을 도입하여 조세구조의 불형평성이 납세성실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납세기피기회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상대적 입장 및 납세기피행위가 독립변수로

28) 변용환, 「상대적 형평이론에 입각한 납세성실도의 연구」, 『경영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경영학회, 1995. 11), 33-58면

사용되어 불형평상태에 있는 여러 종류의 조세구조가 제시되었다.

종속변수인 납세자의 조세저항정도는 인지적 저항, 감정적 저항, 납세기피액 등으로 세분화되어 실험적 방법에 의해 파악되었다. 검정결과 불형평상태에 있는 조세구조는 납세자의 상대적 형평감을 저하시켜 조세저항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이러한 상태에서 당면하게 되는 스트레스(stress)를 해소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납세기피행위를 택하는 성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형평이론은 납세기피행위의 원인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인위적 실험설계로 인해 보편성을 가지기 어렵고, 표본수가 제한되어 있고, 조사대상 인적사항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또한, 현장성이 부족한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설문에 대한 인위적 의사결정을 요구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이 약해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7. 정찬웅의 연구

정찬웅(1996)²⁹⁾은 관리회계와 세무회계를 공부하고 있는 회계학과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먼저 피실험자를 위험중립형 36명은 '실험실 A'로 하고, 위험회피형 36명은 '실험실 B'로 하여 피실험자 집단을 두 집단으로 미리 나누어 통제하며 실험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과 실험을 통하여 납세자의 소득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에 따른 정부 재정수입의 경제적인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경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분석적연구(analytical approach)로 가설을 설정한 후에 실험적연구(experimental approach)를 한다. 먼저, 경제모형 분석에서는 일정구간을 정하여 그 구간내에 세율적용분기점을 두고, 세율을 2단계로 단순화한 다음 분기점을 이동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며, 이

29) 정찬웅, 「납세자의 소득신고 수준결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1996), 19-42면.

때 납세자를 위험회피형(risk averse)으로 미리 통제하고 납세자의 세후 기대소득을 극대화 시키는 값이 신고소득이 되도록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 따른 경제모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게임이론적인 면은 고려치 않았다. 실험실연구에서는 피실험자를 위험중립형(risk - neutral)과 위험회피형(risk - averse)의 두 유형으로 가정하여 Berg et al.(1986)³⁰⁾의 RPI³¹⁾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한 후에 그 실험결과에 따라 가설을 검증한다.

실험결과 위험회피형 납세자의 신고액 결정에는 위험중립형과는 달리 초과누진세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납세자를 위험회피형으로 볼 때, 세율구조를 초과누진세율구조로 하고, 벌금률과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초과누진세율 적용분기점 이하의 세율과 초과세율차이를 크게 하고, 세율적용단계를 두 단계로 단순화하면 납세자의 신고소득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점은 실험실 연구에서 '세금'이라는 정보를 미리 줌으로써 피실험자의 세금에 대한 선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초과누진세율의 분석에서 적용분기점 이하일 때와 초과일 때의 변경세율에 대한 분석이 용이치 못하며 세율수준의 변경만을 분석한 점, 그리고 세무조사의 경우에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2·8. 최영곤의 연구

최영곤(1996)³²⁾은 납세의무자의 세법준수성(taxpayer compliance) 관련 선행연

30) Berg, J. E., L. A. Daley, J. W. Dickhaut, and J. R. O'Brien, "Controlling Preferences for Lotteries on Units of Experimental Exchang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6) ; pp. 281-306

31) RPI방법은 Smith(1961)와 Roth & Malouf(1979)가 처음 소개하고 Berg et al(1986)이 일반화한 위험태도 유인법으로, 이 방법의 특징은 피실험자들이 위험한 일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기대확률로 선택하도록 하며 이 기대확률은 실험자가 효용함수를 변형해서 통제한다. Berg et al은 360° 회전판을 이용했다.

32) 최영곤, 「납세의무자의 세법 준수성 연구: 이론, 문제점 및 전개방향」, 『세무학연구 제8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1996, pp. 151-76.

구들에서 나타난 중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과 이 분야 연구의 미래 전개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거나 회피하는 이유 및 조세회피 금액의 국가 전체적인 규모 등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성실도 즉, 세법준수성 관련 요인들에 대한 축적된 지식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제까지의 세법준수성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들·학문적 배경 및 전제를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 및 기타 원인들 때문에 아직 일반화 가능한 지식들이 별로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세법 준수성 현상을 보는 두가지 주요 관점인 경제적 억제이론과 재정 심리이론의 특성·한계,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세법준수성의 정의 및 측정의 문제 등을 검토한 다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과 조직화, 법적환경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식별노력, 조세전문가의 역할, 연구대상으로써의 세무당국의 활동, 준수성 제고 방법 등에 관련된 미래 연구방향 및 연구테마(thema)들을 제시하였다.

2·9. 조정환의 연구

조정환(1996)³³⁾은 국내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각 회사의 경리 및 회계부서, 자금부 등의 과장급 이상을 상대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가능자료 82부를 사례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회피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이 개별납세자에만 치우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법적환경-과세공평성,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기업의 상황적요인-조세부담감,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납세윤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기업의 법적환경과 상황적 요인이 납세윤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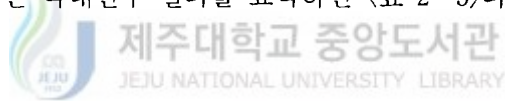
33) 조정환,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8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1996. 10), 243-69면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세공평성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상황적 두가지 요인 조세부담감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는 모두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공평성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가 납세윤리와 연관된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로 납세윤리가 조세회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납세윤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조세회피의 방지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종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업의 민감한 부분인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이므로 측정에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편의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으며, 또한 측정대상이 설문지를 완전히 이해한 경우와 이해하지 못한 경우의 편의를 제거하지 못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국내학자의 성실납세에 대한 연구결과

연구자	조사 방법	연구 결과																
		연령	성별	교육	소득수준	세울조	세울구조	가산세	준거집단	조세운리	공평성	복잡성	세무제재	적발확률	재정불공정	정부신뢰도	벌과금	조세부담
전태영(1990)	실험적	0		-	-						+	+				+	+	
이종환(1992)	실증적					-	-	+						+	0			
신형환(1993)	실험적	0		0	0	-				+	+		+					
김진황(1993)	실증적								-	+	+		+		-	+		-
류시영(1993)	실험적	0	±	0	-		+	-	+	+				+	+			
변용환(1995)	실험적																	
정찬웅(1996)	실험적												+					+
최영곤(1996)	문헌연구												+					
조정환(1996)	실증적								-	+			-					-

주 : + : 성실납세의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
 - : 성실납세의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
 0 : 불확실함

제 3 장 납세자의 조세회피의 연구

제 1 절 조사방법 및 연구표본의 특성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납세자의 사업유형에 따라 조세회피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조세에 대한 불만 및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행동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기위하여 개인기업 및 법인으로 구분하였다

표본추출은 1996년도 제주상공회의소 발행 제주기업체총람중에서 무순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였고 1997년 9월 15일부터 9월30일 까지 15일 동안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으로 직접배부,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조세에 대한 불만이 어느정도인지,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어떤수준인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부터, 그러한 불만과 불신수준 여하에 따라 조세회피욕구가 어느 정도 인지를 측정하고, 그 욕구는 조세회피하려는 행동양식적인 노력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응답하도록 하여 이를 측정 하여 보도록 하였다.

또한, 조세회피를 하게 되는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지고 이들 요인이 각 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에 어떻게 미쳐,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설문지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고,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문항	설문내용	문항수
I. 일반 문항	사회·인구통계학적 요인 1. 성별 2. 연령 3. 최종학력 4. 사업체유형 5. 업종 6. 세무조사유무	5
II. 납세자의 조세인지도	1~5. 납세자의 조세 인지도	5
III. 조세회피행위의 요인 분석	1~10)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세율수준 2) 세율의 증가 3) 적발확률 4) 가산세율 5) 과세의 공정성 6) 재정지출의 공정성 7) 조세윤리 8) 법적체재 9) 세무행정의 신뢰도 10) 사회적 분위기	10
척도 기준	질문척도는 리커트형의 5점척도를 이용	

<표 3-2>

자료수집

	배부부수	회수부수	유효부수	구성비율(%)
법인	100	81	81	75.7
개인기업	100	26	26	24.3
합계	200	107	107	100.0

3. 연구표본의 특성

1) 인구 사회적통계의 특성

① 성별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납세자의 분포는 남자의 경우 56명, 여자의 경우는 50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3-3〉 성별에 따른 분포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남 자	56	52.8
여 자	50	47.2
합 계	106	100.0

② 연령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납세자의 연령은 20대가 38명, 30대가 37명, 40대가 20명, 50대 이상이 11명으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연령에 따른 분포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20 ~ 29세	38	35.8
30 ~ 39세	37	34.9
40 ~ 49세	20	18.9
50 세 이 상	11	10.4
합 계	106	100.0

③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납세자의 교육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51명, 대졸 이상 55명으로 나타났다.

〈표3-5〉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고 졸 이 하	51	48.1
대 졸 이 상	55	51.9
합 계	106	100.0

④ 기업유형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납세자의 사업체의 유형에 따른 분포는 법인이 26개, 개인기업이 81개로 나타났다.

〈표 3-6〉 기업유형에 따른 분포

구 분	빈 도 (개)	비 율 (%)
법 인	26	75.7
개 인 기 업	81	24.3
합 계	106	100.0

⑤ 기업업종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납세자의 사업의 업종에 따른 분류는 제조업이 27개, 도·소매업이 30개, 서비스업이 41개, 건설업등 기타가 9개로 나타났다.

〈표 3-7〉

기업업종에 따른 분포

구분	빈도 (개)	비율 (%)
제조업	27	25.2
도·소매업	30	28.0
서비스업	41	38.3
기타	9	8.4
합계	107	100.0

제 2 절 가설설정

다음 장에서 분석하게 될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이들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인식과 행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납세자의 사업체유형 즉 개인기업과 법인사이에, 사업유형 즉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사이에,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유무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변수인 조세불만, 조세회피행위의 욕구, 세율의 적정수준, 세무행정의 불신의 정도, 조세회피성과에 차이를 보일 것인바, 이는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기회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세금을 포착할 수 있는 정도도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가설 2〉 조세회피의 유발요인에 따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초과누진세율구조,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가산세율체계, 소득의 유형에 따라 세금포착이 다른 상황하에서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세율수준, 세율의 증가, 적발확률, 가산세율, 과세의 공평성, 재정지출의 공평성, 납세자의 조

세율리, 조세회피에 대한 법적제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수준, 사회적인 분위기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한다.

〈가설 3〉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의 유발요인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가설 4〉 납세자의 조세회피인식의 정도에 따라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정의

본 연구는 조세회피행위 분석을 통하여 성실한 조세납부를 유인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세납부의 성실성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조세회피행위를 분석함에 있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서 제시된 조세회피영향요인중 본 연구자가 현실적으로 측정가능한 요인을 선정하였다.

(1) 세율수준

우리나라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이에 대한 세부담율이 체증적으로 커지므로 이러한 세율구조로인한 현재의 세율수준이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2) 세율의 증가

우리나라의 세율은 각 세목별로 다른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율의 증가는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적발확률

이 변수는 국가가 정하는 정책변수로서 세무조사의 강도 및 적발확률을 높일수록 조세회피에 대한 기대가치가 낮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의 강도 및 적발확률을 높이는 방안이 조세회피행위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다.

(4) 가산세율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한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산세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가산세율이 조세회피억제효과가 있는 경우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진다.

(5) 과세의 공평성

조세를 회피하는 정도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그 기회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세금을 포착할 수 있는 정도도 또한 다르다. 이 경우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등 소득의 유형별로 과세의 공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공평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정도에 따라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한다.

(6) 재정지출의 공평성

납세자는 국가와 수직적인 관계속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납부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심리를 갖는게 당연하다. 이러한 보상심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낄때 조세회피행위를 할 것이다.

(7) 조세윤리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납세자의 윤리의식은 조세회피

에 대한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 조사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도덕적 윤리는 정의하기가 매우어려운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이행에 대한 도덕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납세자는 조세회피, 특히 적은 금액의 조세회피인 경우가 도덕적으로 나쁜것이냐는 질문에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정직성을 모호하게 정의해 버리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태도는 조세회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8) 법적제재

조세법을 처벌하는 것은 과거의 조세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직접적 목적을 두고 있지만, 나아가 납세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장래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데 간접적 목적을 두고 있는 바, 법적제재 역시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할 수 있어 성실한 조세납부를 유인하는 변수이다.

(9) 세무행정의 신뢰도

과세관청이 세법규정을 적용하거나 세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납세자들을 무차별하게 대하여야한다. 이와 같은 신뢰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0) 사회적 분위기

조세회피와 관련한 조사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일관된 주장의 하나는 동료집단중에 조세회피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제 4 장 납세자의 조세회피의 실증분석

제 1 절 납세자의 특성별 조세회피인식과 행위에 대한 차이분석

1. 기업형태간 차이 분석

조세회피행위의 변수로서 조세불만, 세율수준, 조세회피에 대한 욕구,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 조세회피행위 노력의 성과를 개인기업과 법인사이에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4-1>와 같다.

조세에 대한 불만은 집단간에 차이를 볼 수 없었지만 개인기업이나 법인 모두 조세에 대한 불만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역시 집단간에 차이를 볼 수 없었고 개인기업이나 법인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세회피에 대한 욕구는 집단간에 차이를 볼 수 없었으며 개인기업이나 법인 모두 조세회피에 대한 욕구는 그리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개인기업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조세회피 행위노력에 대한 성과는 집단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법인기업이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소규모 개인기업의 경우 기장능력의 취약으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과세가 대부분으로 외형의 누락을 제외하고는 조세회피의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법인의 경우는 외형누락뿐 아니라 비용의 과대계상등 조세회피의 수단이 비교적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 기업형태별 조세회피인식과 행위에 대한 차이분석

변수 \ 통계량	기업 형태	MEAN	S.E	F ratio	F prob
조 세 불 만	개 인 기 업	3.7569	.0806	.0594	.8079
	법 인	3.5385	.1269		
세 율 수 준	개 인 기 업	3.6250	.0841	1.7781	.1853
	법 인	3.8462	.1323		
회 피 욕 구	개 인 기 업	3.1558	.1141	1.7865	.1844
	법 인	2.8333	.2305		
세 무 행 정 의 불 신	개 인 기 업	3.4286	.1069	2.4905	.1177
	법 인	3.0833	.1896		
회 피 성 과	개 인 기 업	3.1558	.1241	2.2223	.1391
	법 인	3.5000	.1494		

2. 업종별 차이 분석

조세에 대한 불만은 집단간에 차이를 볼 수 없었으며, 각 집단 모두 조세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세율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세회피에 대한 욕구는 집단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현금수입 업종이며 고객이 최종소비자가 주종을 이루는 바 외형누락이 용이함에 따른 연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에 있어서는 F값이 3.3115($p=.023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조세행정이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타 업종에 비하여 과세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서비스업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세원의 노출이 많아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회피의 성과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4-2> 업종별 조세회피인식과 행위에 대한 차이분석

변수\통계량	업종	MEAN	S.E	F ratio	F prob
조세불만	제조업	3.5185	.1347	.3703	.7746
	도소매업	3.6667	.1307		
	서비스업	3.5122	.0932		
	기타	3.6667	.3727		
세율수준	제조업	3.7037	.1492	.6388	.5917
	도소매업	3.7931	.1253		
	서비스업	3.5610	.1161		
	기타	3.7778	.2778		
회피욕구	제조업	2.8000	.2082	1.4022	.2468
	도소매업	3.1429	.1834		
	서비스업	3.2750	.1601		
	기타	2.7500	.4532		
세무행정의불신	제조업	2.9200	.1818	3.3115	.0233
	도소매업	3.5000	.1585		
	서비스업	3.5750	.1471		
	기타	3.0000	.3780		
회피성과	제조업	3.0000	.1922	1.3807	.2531
	도소매업	3.3214	.1786		
	서비스업	3.2250	.1735		
	기타	3.7778	.3239		

3. 세무조사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조세에 대한 불만은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납세자가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비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세율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조세회피욕구 및 조세회피노력에 대한 노력의 성과 역시 세무조사 경험 유무에 차이를 볼 수 없다.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많은 세수결손을 보이고 있는 바 세무조사의 횟수가 많아지고 세무조사시 과거에 비하여 조사의 강도가 높아진 반면 세무공무원들의 세금회피에 대한 묵인 또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 4-3〉 세무조사 여부에 따른 조세회피인식과 행위에 대한 차이분석

변수\통계량	조사여부	MEAN	S.E	F ratio	F prob
조 세 불 만	유	3.8077	.1361	3.8991	.0511
	무	3.5000	.0784		
세 율 수 준	유	3.8462	.1538	1.5692	.2132
	무	3.6410	.0795		
회 피 욕 구	유	3.0833	.2163	.0046	.9461
	무	3.0667	.1206		
세 무 행 정 불 신	유	2.8750	.1933	8.2867	.0049
	무	3.4933	.1046		
회 피 성 과	유	3.3462	.1749	.3856	.5360
	무	3.2000	.1245		

제 2 절 조세회피 유발요인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

본 연구의 특성상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회피 유발동기가 조세회피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방향성과 유발 동기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므로 우선, 조세회피행위 유발을 개별적으로 검증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 유발은 세율수준, 세율의 증가, 적발확률, 가산세율,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모두 양(+)의 방향을 갖고 있으며, 과세공평성, 재정지출의 공평성, 조세윤리, 법적제재, 세무행정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표 4-4> 조세회피의 개별적 유발요인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

요인 \ 통계량	회귀계수(B)	SE B	Beta	R ²	T value	Sig T
세율수준	.10250	.07079	.14472	.02094	1.448	.1509
세율의 증가	.06460	.05327	.12159	.01478	1.213	.2282
적발확률	.02175	.05658	.03879	.00150	.384	.7016
가산세율	.02750	.05431	.05136	.00264	.506	.6137
과세의공평성	-.08807	.05541	-.16167	.02617	-1.589	.1154
재정지출의 공평성	-.17854	.05658	-.31100	.09672	-3.156	.0022
조세윤리	-5.18780E-03	.05376	-9.798E-03	.00010	-.097	.9293
법적제재	-.13036	.05164	-.24709	.06105	-2.524	.0132
세무행정의 신뢰도	-.23389	.05464	-.40210	.16168	-4.280	.0000
사회적 분위기	.29732	.05271	.49504	.24506	5.640	.0000

조세회피행위 유발을 개별적으로 검증한 것과는 달리 이들 요인의 영향이 유의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검증에 있어서 앞의 변수의 선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세율수준, 세율의 증가, 적발확률, 가산세율, 과세의 공평성, 재정지출의 공평성, 조세윤리, 법적제재, 세무행정의 신뢰도, 사회적 분위기의 요인을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Y = \alpha + \beta_1X_1 + \beta_2X_2 + \dots + \beta_{10}X_{10}$$

- Y : 조세회피행위
- X1 : 세율수준
- X2 : 세율의 증가
- X3 : 적발확률
- X4 : 가산세율
- X5 : 과세의 공평성
- X6 : 재정지출의 공평성
- X7 : 조세윤리
- X8 : 법적제재
- X9 : 세무행정의 신뢰도
- X10 : 사회적 분위기



이 때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유는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각각의 요인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상대적 크기를 밝혀,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설정시 각각의 요인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모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는 F 통계량 값은 17.21065이고, 이에 대한 significance가 0.0000에서 회귀식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상기 모형을 이용하여 각 납세자의 유형별로 변수를 측정한 결과 다음의 회귀식을 얻을 수 있었다.

$$Y = 1.92413 + 0.28235X_{10} - 0.138879X_9 + 1.4630X_1$$

이 함수관계에서 조세회피행위유발은 사회적 분위기, 세율수준에 대해서는 모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X2(세율의 증가), X3(적발확률), X4(가산세율), X5(과세의 공평성), X6(재정지출의 공평성), X7(조세윤리), X8(법적제재)과 Constant는 그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Sig T = 0.1042, 0.88207, 0.9515, 0.2850, 0.3695, 0.8524, 0.5522 > 0.05) 회귀계수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절대적인 값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 분위기,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세율수준이 비교적 다른 요인보다 조세회피에 대한 동기를 크게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의 요인들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조세회피 유발요인 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	SE B	Beta	R ²	T value	Sig
조세회피 행위	1	사회적 분위기	.32047	.05477	.53141	.28240	5.851	.0000
	2	세무행정 신뢰도	-1.4397	.05481	-.25198	.33569	-2.627	.0102
	3	세율수준	1.4630	.06092	.20843	.37789	2.401	.0185
상수	.92411,	1.18807,	1.92413	F-value	17.21065	Sig F	.0000	

제 3 절 납세자의 특성별 조세회피유발요인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각 납세자 특성별 조세회피 유발요인이 유의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1.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경우는 조세회피행위와 영향요인간의 함수관계에서 조세회피행위유발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요인이 조세회피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R²가 32.5%로 나타났다. 개인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경영의 형태가 소유주의 주관적 경험에 의지하는바 조세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조세회피를 하는데 있어서도 세율수준이 높다든가, 적발확률, 재정지출의 공정성, 가산세의 구체적인 부담내용 등 논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세회피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적인 조세회피욕구, 불만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6> 개인기업의 조세회피 유발요인 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	SE B	Beta	R ²	T value	Sig
조세회피행위	1	사회적분위기	.32535	.05903	.57040	.32535	5.512	.0000
상수	.98368	F-value	30.38226	Sig F	.0000			

2. 법 인

법인의 경우는 조세회피행위와 영향요인간의 함수관계에서 조세회피행위유발에 대해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요인이 조세회피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R²가 24.5%를 보이고 있다.

<표 4-7> 법인의 조세회피 유발요인 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	SE B	Beta	R ²	T value	Sig
조세회피 행위	1	세무행정 신뢰도	-.23950	.08940	-.49595	.24597	-2.679	.0000
상수 2.45378		F-value 7.17651	Sig F .0000					

3. 제조업

납세자의 사업유형 중 제조업의 경우는 조세회피행위와 영향요인간의 함수관계에서 조세회피행위유발에 대해 과세의 공평성이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조세회피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R²가 34.99% 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본집단이 속한 제주도내의 제조업체는 규모가 영세할 뿐 만 아니라 사업의 체산성마저 열악한 상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크게 사실이다.

<표 4-8> 제조업의 조세회피 유발요인 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	SE B	Beta	R ²	T value	Sig
조세회피 행위	1	과세의공평성	.28564	.08522	.59157	.34995	3.362	.0029
상수 1.00385		F-value 11.30534	Sig F .0029					

4. 도·소매업

납세자의 사업유형 중 도·소매업의 경우는 조세회피행위와 영향요인간의 함수관계에서 조세회피행위유발에 대해 세율의 증가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조세회피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R²가 66.23%

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 소매업자들이 세율이 높음에 따른 영향을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이 받는 것을 보이고 있다.

<표 4-9> 도·소매업의 조세회피 유발요인 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	SE B	Beta	R ²	T value	Sig
조세회피 행 위	1	세율의 증가	.37566	.12343	.96672	.66235	3.043	.0102
상수		1.61138	F-value	2.35395	Sig F .0811			

5. 서비스업

납세자의 사업유형 중 서비스업의 경우는 조세회피행위와 영향요인간의 함수관계에서 조세회피행위유발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적제재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적제재가 조세회피행위에 억제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요인들이 조세회피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R²가 44.9%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0> 서비스업의 조세회피 유발요인 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	SE B	Beta	R ²	T value	Sig
조세회피 행 위	1	사회적분위기	.39933	.09450	.59257	.35113	4.226	.0002
	2	법적제재	-.18174	.07622	-.31556	.44903	-2.384	.0232
상수		1.34416	F-value	13.03962	Sig F .0001			

6.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특성 중 세무조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조세회피행위유발에 사회적 분위기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조세회피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R 가 49.88%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1>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의 조세회피 유발요인 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	SE B	Beta	R ²	T value	Sig
조세회피 행 위	1	사회적분위기	.48718	.10411	.70629	.49885	4.680	.0002
상수	.15385	F-value	21.89890	Sig F		.0001		

7.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납세자의 특성 중 세무조사의 경험이 없는 경우는 조세회피행위유발에 사회적 분위기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무행정의 신뢰도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조세회피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R²가 32.3%를 나타냈다.

<표 4-12>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의 조세회피 유발요인 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	SE B	Beta	R ²	T value	Sig
조세회피 행 위	1	사회적분위기	.28784	.06418	.49496	.24498	4.485	.0000
	2	세무행정의 신뢰도	-.18643	.07027	-.32209	.32310	-2.653	.0102
상수	1.84224	F-value	14.55822	Sig F		.0000		

제 4 절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

납세자의 조세회피욕구와 조세회피행위 노력에 대한 성과가 조세회피행위 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세불만, 세율수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여부와는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다. 즉 회피욕구와 회피노력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인식이 조세회피행위 유발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요인이 조세회피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R²가 27.06%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표 4-13> 조세회피인식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계수(B)	SE B	Beta	R ²	T value	Sig
조세회피	1	회 피 욕 구	.21778	.04732	.42882	.18388	4.602	.0000
행 위	2	회 피 성 과	.16067	.04830	.31048	.27066	3.326	.0013
상수	1.46031	1.09352	F-value 17.25633	Sig F .0000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세회피 행위분석을 통해 성실한 조세납부를 유인하는 방법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세납부의 성실성은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통하여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1) 세율수준, (2) 세율의 증가, (3) 적발확률, (4) 가산세율, (5) 과세의 공평성, (6) 재정지출의 공평성, (7) 조세윤리, (8) 법적제제, (9) 세무행정의 신뢰도, (10) 사회적 분위기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분석에서는 가설1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 인식과 행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조세회피의 유발요인에 따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가설 3>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의 유발요인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가설 4> 납세자의 조세회피 인식의 정도에 따라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라는 4가지의 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납세자의 특성별 조세회피 인식과 행위에 관한 차이분석에 있어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F값이 3.315(P=0.23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의 조세행정이 현금 수입업종에 대해서는 타 업종에 비해서 과세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세원의 노출이 많아지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무조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높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많은 세무 결손을 보이고 있는 바, 세무조사의 횡수가 많아지고 세무조사의 강도가 과거에 비하여 높아진 반면 세무공무원의 세금회피에 대한 묵인 또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조세회피 유발요인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조세회피행위 유발은 사회적 분위기, 세율수준에 대해서는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무행정 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셋째, 납세자의 특성별 조세회피 유발요인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경우는 조세회피행위 유발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인의 경우는 조세회피행위 유발에 대해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조세회피행위 유발에 대해 과세의 공평성의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조세회피행위 유발에 대해 세율의 증가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R²가 66.23%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소매업자들이 세율의 높음에 따른 영향을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자의 특성 중 세무조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무조사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른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있어서 납세자의 조세회피 욕구와 조세회피행위 노력에 대한 성과가 조세회피행위 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세불만, 세율수준, 세무행정 에 대한 불신의 정도와는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조세회피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1)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사회적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건전한 조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성실한 기장을 기초로 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해 납세자가 왜 세금을 내어야만 하고, 그들이 내는 세금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납세자 교육, 홍보, 협력단체의 육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세무조사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 조세에 대한 불만,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조세기구의 정비와 효율적 조세행정으로 탈세자를 색출해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세정 전반에 걸쳐 신고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세무조사의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가산세율의 증가요인이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가산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실제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조세회피에 대한 강력한 벌칙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산세가 본래의 목적을 살리려면 현재의 가산세율을 높혀 납세자의 탈세에 대한 기대가치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납세자에 대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 조세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세회피를 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민세 등 소득세와 관계되는 세목을 동시에 모두 고려하지는 못했다. 셋째, 조세회피는 대단히 복잡한 사회현상이어서 가설이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선택된 변수만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조세회피를 결정하는 변수들은 대단히 많으며 조세회피의 사결정에 여러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변수를 어떻게 선택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또는 변수의 수준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세청, 『감사지적 사례집』, 1994, 1995.
- _____, 『세무조사실무』, 국세청, 1994.
- _____, 『조세—그 유형과 실태』, 국세청, 1982, 10-1면.
- _____, 『국세청 30년사』, 국세청, 1996, 329-30면.
- 김진황,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유시형,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18면.
- 박헌열,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변용환, 『상대적 형평이론에 입각한 납세성실도의 연구』, 『경영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경영학회, 1995. 11, 33-58면.
- 『세무대백과사전』, 한국세정연구회, 1986, 119면
- 이종환,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필우,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접근』, 『한국재정학회 1986년도 가을학술 발표회 논문집』, 1986. 10, 56면.
- _____, 『조세론』, 법문사, 1995, 426면.
-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정찬웅, 『납세자의 소득신고 수준결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1996, 19-42면.

- 신형환, 『조세회피와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조정환,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8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1996. 10, 243-69면.
- 최 광,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7.
- 최영곤, 『납세의무자의 세법 준수성 연구:이론, 문제점 및 전개방향』, 『세무학연구 제8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1996. 10, 151-76면.
- 황원오, 『국제적인 조세회피의 유형과 대책』, 『한국국제재정협회 조세학술논집 제4집』, 조세통람사, 1987, 33면.

〈국외논문〉

- Benjamini. Y. and S. Maital, "Optimal Tax eVasion and Optimal Tax Evasion Policy : Behavioural Aspects", in the Economics of the Shadow Economy, edited by W. Gaertner and A. Wenig. Berlin : Springer-Verlag, 1(1985)
- Berg. J. E., L. A. Daley, J. W. Dickhaut, and J. R. O'Brien, "Controlling Preferences for Lotteries on Units of Experimental Exchang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1986), pp. 281-306.
- Crosse. R. and G. k. Shaw, "The Tax Evasion-Avoidance Choice : A Suggested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Vol. 34,(1981):pp. 489-91
- Gutmann. P. M., "The Subferranean Economy", Financial Analysis Journal, Vol 33(Sept 1Dec) 1977, p. 4.

- Jackson. B. R., V. C. Milliron,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on Literature, (1986) ; pp. 125-65.
- , and P. Jaouen, "Influencing Taxpayer Compliance through Sanction Threat or Appeals to Conscienc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1985).
- Allingham. M., Sandmo. A., "Income Tax Evasion: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Nov. 1972, pp. 323-338.
- Yitzhaki. S., "Income Tax Evasion: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 1974, pp. 201-202.
- Christiansen. V., "Two Comments on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5, 1980, pp. 363-373.
- Lewis. A.,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Vol. 34(1979) : pp. 245-57.
- Mason. R., and L. D. Calvin, "Public Co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Dec. 1984) : pp. 73-89.
- Song. Y. D. and T. 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Discrepan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8, (1978) ; pp. 442-52.
- Spicer. M. W. and S. B. Lundstedt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Vol. 31, (1976) ; pp. 295-305.
- Vogel. J.,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ew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 27, NO. 4 (Dec, 1974) ; pp. 499-513.
- Friendland. N., Maital, S., and Rutenberg. A., "A Simulation Study of

-
-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0, 1978, pp. 107–116.
- Clotfelter. C. I., “Tax Evasion and Tax R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 1983, pp. 363–373
- Witte. A. D., Woodbury, D. F.,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The case of The U. 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Mar, 1985. p. 9.



I. 다음은 통계의 기준이 되는 간단한 특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성심성의껏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이상

4. 귀하의 사업체 유형은?

- ① 개인기업 ② 법인

5. 귀하의 사업유형은?

- ① 제조업 ② 도·소매업 ③ 서비스업 ④ 기타

6. 귀하는 최근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 ① 유 ② 무

II. 아래 항목들은 조세에 관한 인식정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1. 귀하는 현재의 세율이 어느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비교적 낮다 ③ 적정 하다 ④ 비교적 높다 ⑤ 매우높다

2. 귀하는 귀하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에 대하여 어느정도 불만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비교적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많다 ⑤ 매우 많다

3. 귀하는 현재의 조세행정하에서 어느정도 조세회피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비교적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많다 ⑤ 매우 많다

4. 귀하의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의 정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비교적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많다 ⑤ 매우 많다

5. 세금회피에는 국세청의 목인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비교적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많다 ⑤ 매우 많다

III. 아래 항목들은 조세회피 요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1. 귀하는 현재의 세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비교적 낮다 ③ 적정하다 ④ 비교적 높다 ⑤ 매우 높다

2. 귀하는 과세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비교적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높다 ⑤ 매우 높다

3. 귀하는 재정지출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비교적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높다 ⑤ 매우 높다

4. 현재보다 세율을 높일 경우 조세회피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적다 ② 비교적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많다 ⑤ 매우 많다

5.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강도 및 적발확률을 높인다면 조세회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낮다 ② 비교적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높다 ⑤ 매우 높다

6.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율을 높인다면 조세회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낮다 ② 비교적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높다 ⑤ 매우 높다

7. 세무당국의 세무행정에 대한 귀하의 신뢰도는 어느정도입니까?

①매우 낮다 ② 비교적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높다 ⑤ 매우 높다

8. 현재의 조세포탈에 대한 법적제재의 정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낮다 ② 비교적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높다 ⑤ 매우 높다

9. 귀하에게 조세회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전혀하지 않겠다 ② 어느 정도 하겠다 ③ 가능한한 최대한 하겠다

10. 사업을 하는 사람들중 어느정도가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적다 ② 비교적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많다 ⑤ 매우 많다

11. 조세윤리(범죄의식 등)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적다 ② 비교적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많다 ⑤ 매우 많다